

지역 소식통

고창 성산길 간판개선

고창군이 깨끗하고 정비된 거리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고창읍 성산길 일원 상가 주민들과 '성산길 간판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산길 간판개선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성산길 일원 500m에 대해 사업비 4억4000만원을 투입해 건물 외벽 정비, 60여개 간판을 산뜻하게 바꾸는 사업이다

성산길은 고창 교통의 핵심인 고창터미널이 위치한 고창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추진위원회 주도로 간판 디자인 협의와 한국지방재정 용역광고센터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성산길 경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 지구(중심시가 지역·공기업 제한형·주거지 지원형)를 대상으로 지구별 20가구씩 전체 60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지붕, 창호, 담장, 대문, 외벽, 화단, 옥상 방수 등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천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참여의향서 접수와 실태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 후 올해 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도시재생과(539-5805)와 정읍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태풍대비 태세 강화

'하이선' 복상... 재난대응시스템 가동, 이동경로 등 점검 최대 150mm 강수 예상...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총력

정읍시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지난 4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정읍시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지난 4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의 이동 경로와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별 조치사항과 대처 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하천과 급경사지, 배수 시설물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위험

지구 등에 대해 긴급 점검과 예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형공사장의 타워크레인과 볼출간판, 축대·옹벽 등 강풍에 대비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태풍 영향이 끝날 때까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동 24시간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950km 부근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시속 14km로 북상하고 있다

7일 오전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최대 150mm의 강수와 풍속 10~25m/s의 강풍이 예상된다

곽승기 부시장은 "재난홍보 방송시스템과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주민 행동 요령과 기상 상황을 홍보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도 태풍 상륙 시간대에 가급적 외부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단풍미락' 브랜드화 총력

음식점 5곳 맞춤형 아카데미

정읍시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 '단풍미락'의 브랜드화·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풍미락'은 지역 음식이 관광 자원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고유의 감성과 향수를 담아 만든 정읍 대표 음식이다

시는 이달 참여의향서 접수와 실태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 후 올해 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도시재생과(539-5805)와 정읍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개발에 선보였다. 시는 이들 대표 음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명물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11월 23일까지 3개월에 걸쳐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대표 음식 전수 희망업소 엔카페와 일송정 2개소를 단풍미락 판매 음식점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단풍미락 맛볼 수 있는 곳은 기존의 옥돌생고기와 내장산 명인관 찜춘을 비롯해 총 5곳으로 늘어났게 됐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요 내용은 신규 대표음식점 메뉴 전수와 업소별 맞춤형 도시락 개발, O2O(Online to Offline) 1:1 맞춤형 컨설팅 등이다

특히 혼밥, 혼술 등 1인 외식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의 비대면 형태의 외식문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락으로 개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판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농기계 임대팀, 남원 수해지역 수리 봉사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기계 임대팀에서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집중호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남원시 금지면 일원에서 전북도와 함께 9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장난 농기계 수리 봉사에 참여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침수된 농기계는 수리가 늦어질 경우 엔진고장도 부식이 곧바로 진행돼

농기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을철 영농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농기계 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북도가 주관해 추진하는데 부안군 농기계 임대팀이 참여하게 되었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6명의 농기계 수리요원이 참여하여 경운기, 예초기, 동력분무기,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수리와 무상점검, 오일 및 부품교체 작업과 침수된 농기계 응급조치 요령 등을 지도해 현지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농기계 수리 봉사에 참여하게 된 채창호 주무관은 "이번 농기계 순회 봉사 지원으로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수리 봉사에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던 지난달 31일 고창군 심원면사무소 직원이 집안에서 쓰러진 홀로 어르신을 구해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고창 심원면사무소 유원일 씨 홀로 어르신 구해내 감동 선사

고창군 심원면사무소 유원일 주무관, 폭염 속 쓰러진 홀로어르신 구해내 감동 선사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던 지난달 31일 고창군 심원면사무소 직원인 유원일 씨가 집안에서 쓰러진 홀로 어르신을 구해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고창군 심원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근무하는 유원일 주무관(22)은 평소 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유 주무관은 외딴곳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64)를 알게 됐다

유 주무관은 "코로나19로 경로당에 나가지 못하면서 어르신들 건강이 걱정돼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제일

먼저 물품 지원 등을 해드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매번 같은 시간에 드리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불안한 생각에 할아버지 댁을 직접 찾았다

유 주무관은 119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조금씩 물을 건네드리면서 살뜰히 살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격포권 관광개발 본격

변산 마포리 일원 124만여㎡ 민간투자자 공모 절차 착수

부안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관광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부안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격포권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격포권은 부안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이지만 지난 2008년 개장한 소노벨 변산구 대명리조트 변산) 외에는 별다른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침체기를 겪고 있다

반면 전남 신안·영광·나주 등을 비롯해 전북 군산 고군산열도, 충남 서천 등 인근 지자체들은 대규모 복합리조트 유치와 지역명물 대교 건설, 각종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서해안권 해양관광산업 선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변산면 마포리 일원 124만여㎡ 부지에 복합기능을 갖춘 격포 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민간투자자를 공모한다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해당 부지에 공공편익시설과 숙박시설, 운동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12월 1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1년 1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군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부안관광의 심장부인 격포권에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hild abuse to the National Child Helpline (112) and lists signs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procedures.